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17년 ~ ’19년)

2020. 8.

- ☐ 본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산업체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국 규제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매월 제공하고 있는 「수출국 규제 정보-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를 토대로 작성

《수출국 규제 정보-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 목적

- 산업체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 해외 수출국 규제정보(기준규격) 제공을 통한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감소

☐ 수행방법 및 주요내용

- 수행방법
 - 매월 해외 주요국 정부(5개국)가 발표하는 수입식품 검사 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 분석 및 관련 기준규격 조사 (월1회 실시)
- 주요내용
 -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 국가별, 식품별, 원인별 현황
 - (주요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다빈도·지속적 발생 등 주요 부적합 식품의 상세 정보 및 5개국 관련 기준·규격
 - (한국산 식품 부적합 내역 및 월별 누적 현황) 5개국 발생 한국산 식품 부적합 전체 목록, 식품별·원인별 월별 누적 현황
 - (한국산 식품 수출 현황) 국가별(5개국), 품목별 식품 수출 현황

☐ 제공방법

-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foodinfo.or.kr>) 공개
-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index.do>) 공개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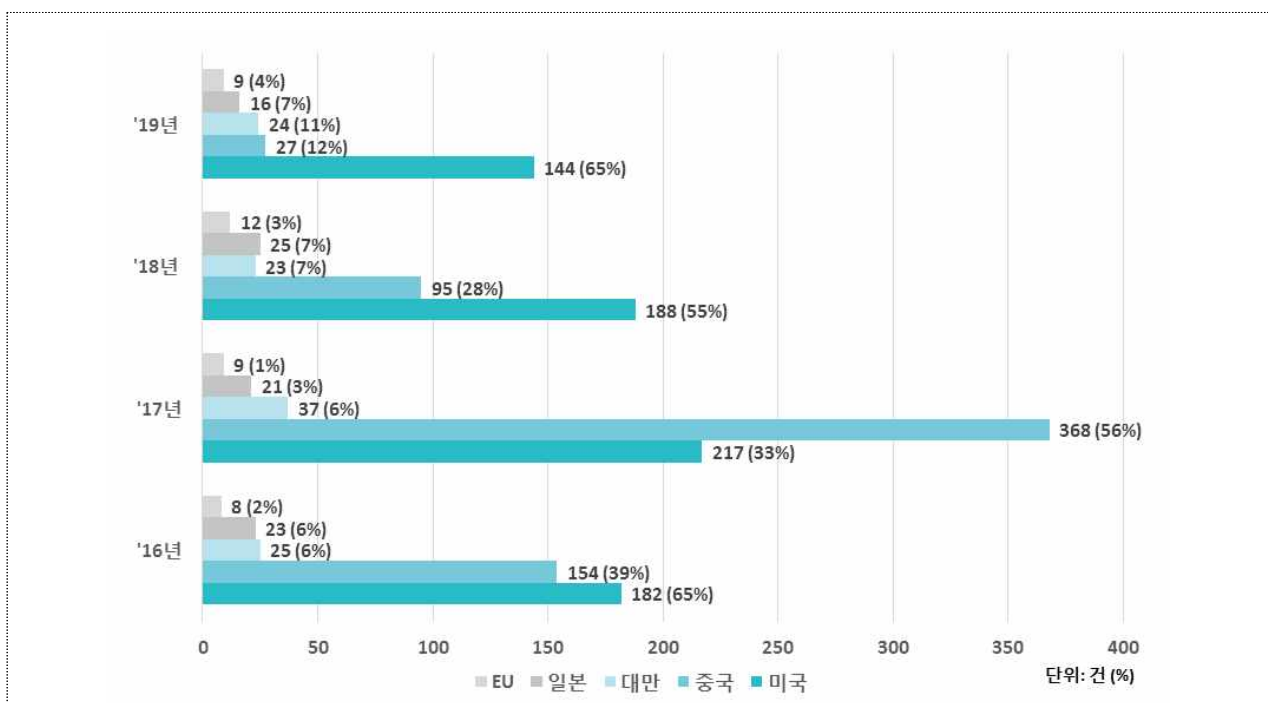
1. 개요	3
2. 국가별 부적합 동향	6
(1) 미국	6
(2) 중국	9
(3) 대만	13
(4) 일본	15
(5) EU	18
3. 맺음말	20

1

개요

- '17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해외 주요국 정부(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1,215건¹⁾이었음
 - (국가별) 미국이 549건(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 490건(40%), 대만 84건(7%), 일본 62건(5%), EU 30건(2%) 순이었음. 미국과 중국이 전체의 85%를 차지함
 - (연도별) '17년 652건, '18년 343건(전년대비 ▼47.4%), '19년 220건(전년 대비 ▼35.9%)으로 감소 추세임
 - 중국에서의 부적합 사례는 '17년 368건으로 전년 대비 39% ('16년 154건) 급증하였으나, '18년 95건(전년대비 ▼74.2%), '19년 27건(전년대비 ▼71.6%)으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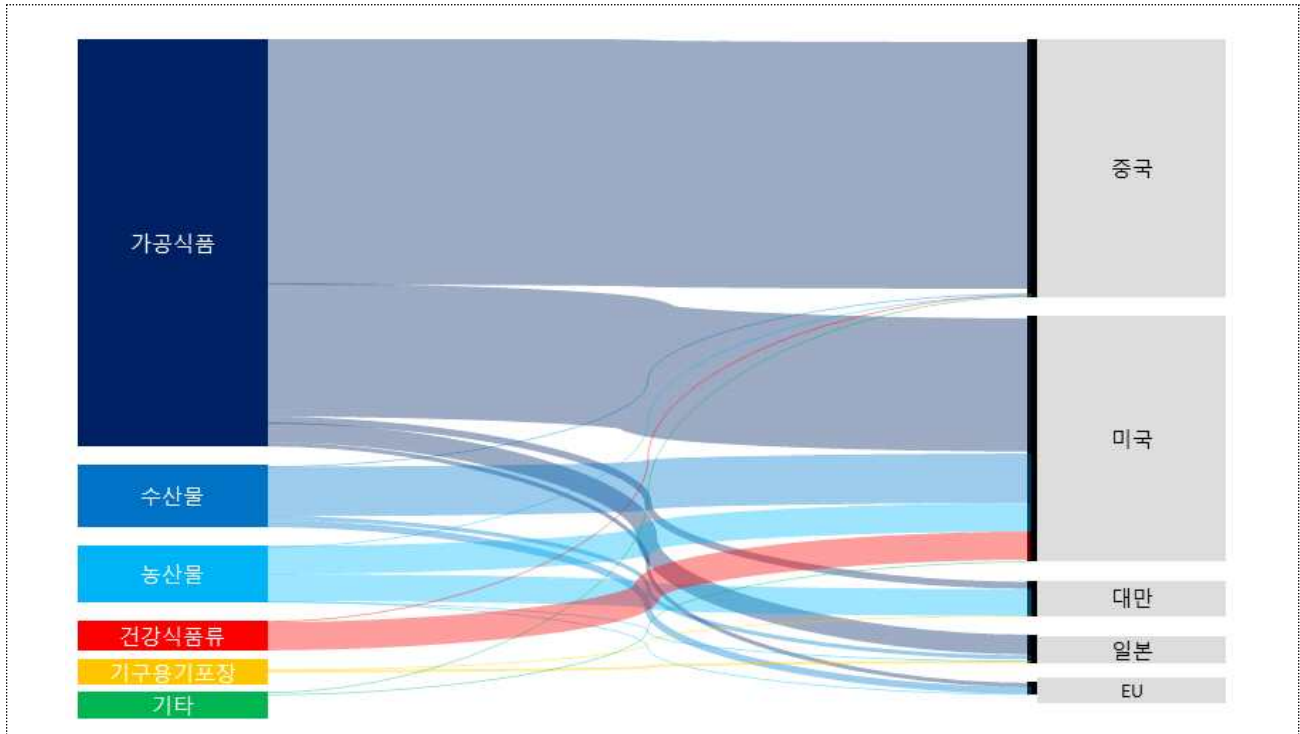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연도별/국가별 ('16년~'19년)]



1) 본 보고서는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조치시기가 아닌 해당국 정부가 부적합 정보를 공개(발표)한 시기를 기준으로 작성됨

- (식품유형별) 가공식품이 859건(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산물 160건(13%), 농산물 134건(11%), 건강식품류 50건(4%), 기구용기포장 7건(1%) 순이었음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식품유형별/국가별 ('17년~'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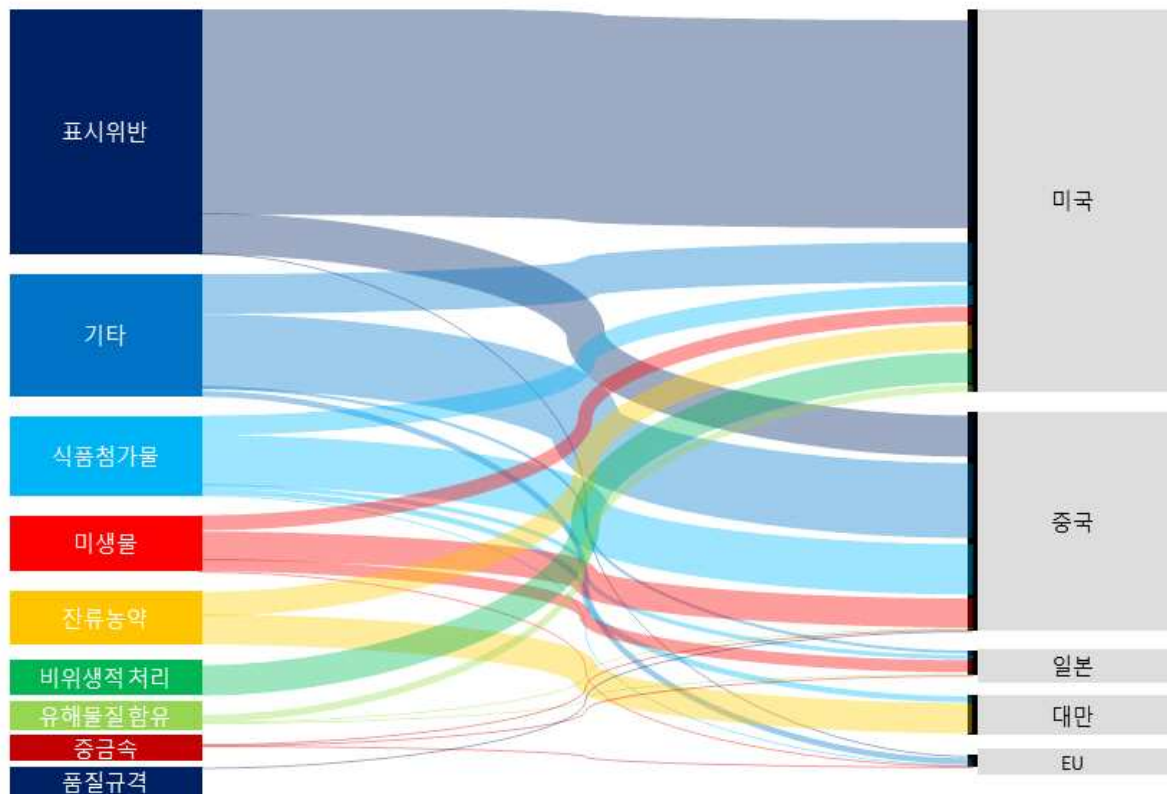
- (원인별)2) 표시위반이 693건(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타* 346건(20%), 식품첨가물 225건(13%), 미생물 160건(9%), 잔류농약 150건(9%) 순이었음

* 기타 항목 : 품질유지기한 경과(중국), 서류미비(중국), 산성식품 제조업체 미등록(미국), 제조공정 미제출(미국), 건조 해조류의 요오드 고함유(EU)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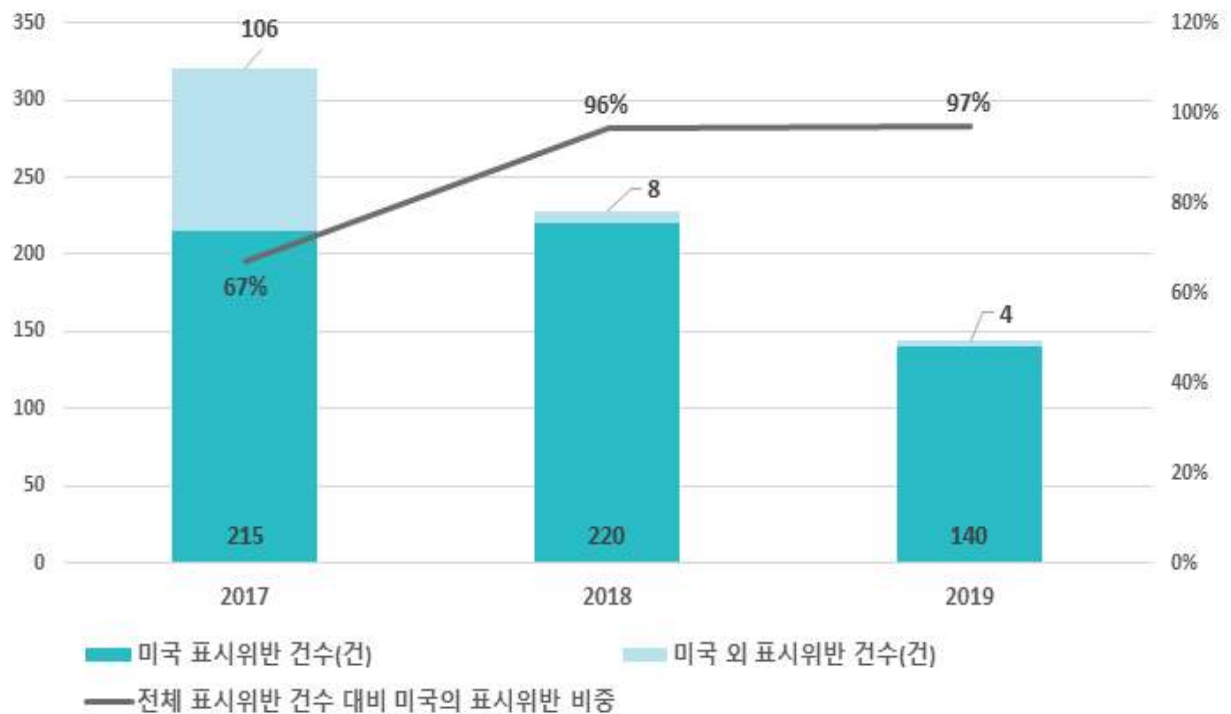
- 기타 항목 위반 346건 중 207건은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주로 품질유지기한 경과, 서류 미비 등이 원인으로 조사됨
- 표시위반은 미국이 575건으로 전체 표시위반 사례 중 83%이었으며, 미국에서의 표시위반 부적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식품 1건당 부적합 원인이 복수인 경우, 이를 개별 집계하여 부적합 사례 건수와 상이함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부적합사유별/국가별 ('17년~'19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표시위반 ('17년~'19년)]



2

국가별 부적합 동향

(1) 미국

□ 3개년 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은 총 549건이었음

- '17년 217건, '18년 188건(전년 대비 ▼13%) '19년 144건(전년 대비 ▼23%)으로 감소 추세임

* 3개년 간 한국산 식품의 對미국 수출액(누적)은 약 33억 달러로, 전체 국가 중 일본,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함

□ (식품유형별) 가공식품이 318건(5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수산물 122건(22%), 농산물 62건(11%), 건강식품류 45건(8%)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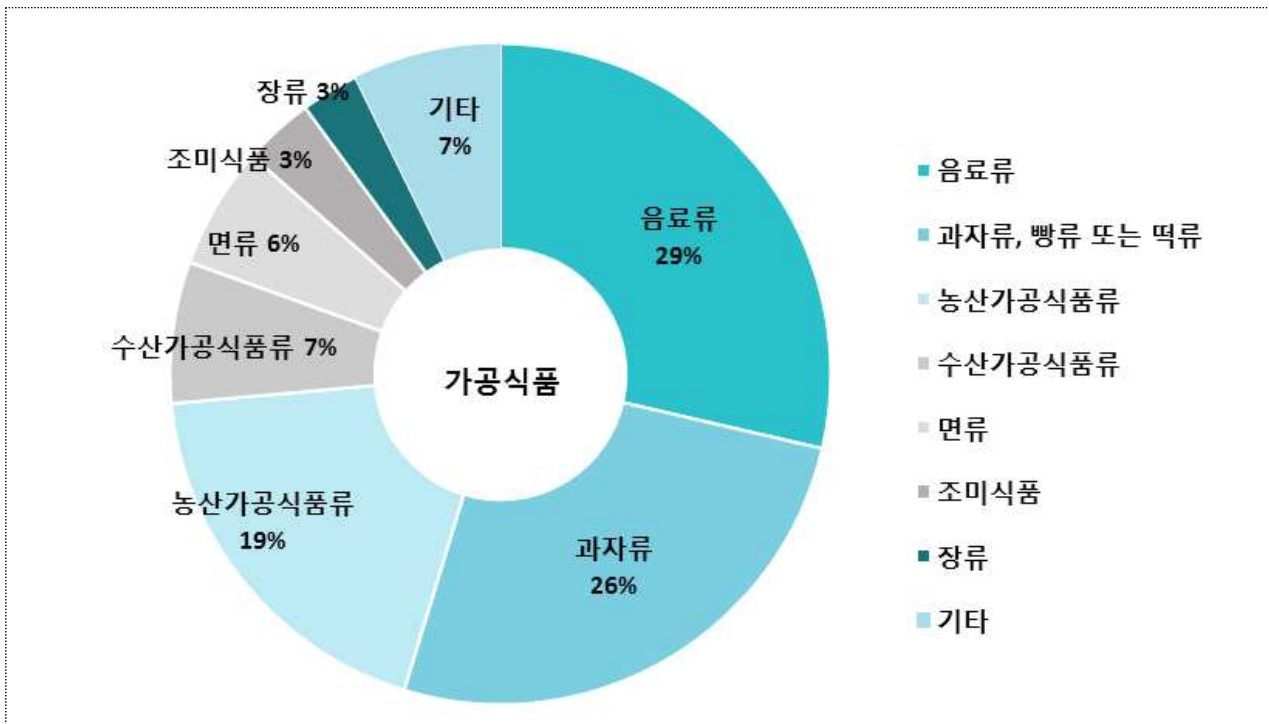
- 부적합 가공식품에는 음료류(9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과자류·빵류 또는 떡류(83건), 농산가공식품류(60건), 수산가공식품류(22건) 등이었음

[미국_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연도별/식품유형별]

구분	'17년	'18년	'19년	합계
가공식품	135 (62)	85 (45)	98 (68)	318 (58)
건강식품류	13 (6)	26 (14)	6 (4)	45 (8)
농산물	27 (12)	23 (12)	12 (8)	62 (11)
수산물	42 (19)	52 (28)	28 (19)	122 (22)
식품첨가물	0 (0)	2 (1)	0 (0)	2 (0)
합계	217 (100)	188 (100)	144 (100)	549 (100)

(단위: 건, ()는 연도별 식품 구분 비율, %)

[미국_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가공식품의 유형별 ('17년~'19년)]



- (원인별) 표시위반*이 575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12%), 비위생적 처리(9%), 잔류농약(7%), 식품첨가물(6%) 순이었음

* 표시위반 항목 : 라벨 불합격, 영양정보 미표시, 영어 미표기, 식품 일반명 미표시, 성분 미표시, 식이보충제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업체정보 누락 등

** 기타 항목 : 제조공정 미제출, 산성식품 제조업체 미등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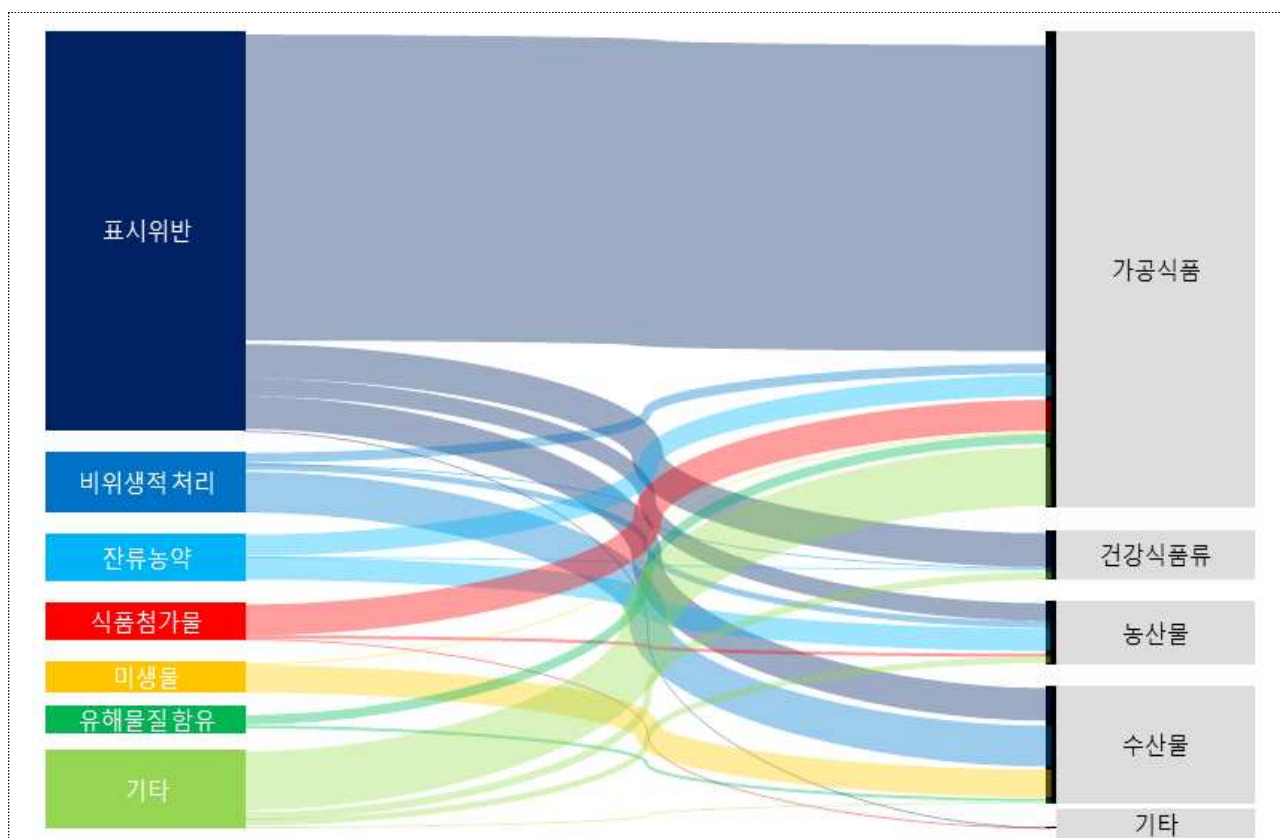
- 식품유형별 주요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가공식품과 건강식품류는 절반 이상이 표시위반이었음
- 부적합 가공식품 중 음료류(91건)의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위반(63%)이었으며, 과자류·빵류 또는 떡류(83건)는 표시위반(70%), 식품첨가물(36%) 순이었음
- 농산물은 잔류농약(40%)과 표시위반(32%) 순이었으며, 수산물은 비위생적 처리(38%), 표시위반(31%), 미생물(26%) 등이었음

[미국_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연도별/부적합사유별]

구분	'17년	'18년	'19년	합계
표시위반	215 (63)	220 (61)	140 (54)	575 (60)
비위생적 처리	18 (5)	43 (12)	25 (9)	86 (9)
잔류농약	28 (8)	23 (7)	16 (6)	67 (7)
식품첨가물	22 (7)	15 (4)	16 (6)	53 (6)
미생물	11 (3)	18 (5)	15 (6)	44 (4)
유해물질	10 (3)	4 (1)	6 (2)	20 (2)
기타	37 (11)	36 (10)	39 (15)	112 (12)
합계	341 (100)	359 (100)	257 (100)	957 (100)

(단위: 건, ()는 연도별 부적합사유 구분 비율, %)

[미국_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부적합사유별/식품유형별 ('17년~'19년)]



(2) 중국

□ 3개년 간 중국 해관총서(GACC)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은 총 490건이었음

○ '17년에 368건 발생하였으며, '18년 95건(전년 대비 ▼74%), '19년 27건(전년 대비 ▼72%)으로 감소함

- '17년 당시 한·중 양국의 사드(THAAD) 갈등으로 한국산 식품 통관이 까다로워져 부적합 식품이 급증했고, '18년 상반기 이후 반한 감정이 완화되면서 통관 거부 사례가 감소했다는 일부 시각도 있음

* 3개년 간 한국산 식품의 對중국 수출액(누적)은 약 45억 달러로, 전체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식품유형별) 부적합 식품 490건 중 대부분이 가공식품(476건)이었음

○ 부적합 가공식품에는 수산가공식품류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과자류·빵류 또는 떡류(108건), 음료류(99건), 농산가공식품류(27건), 면류(24건) 등이 포함됨

- 김 제품(조미김) 부적합* 사례는 86건으로 수산가공식품류에서 가장 높은 비중(76%)을 차지함

구분	'17년	'18년	'19년	합계
김제품 부적합 사례(건)	61	21	4	86
전체 부적합 사례 대비 비중 (%)	17	22	1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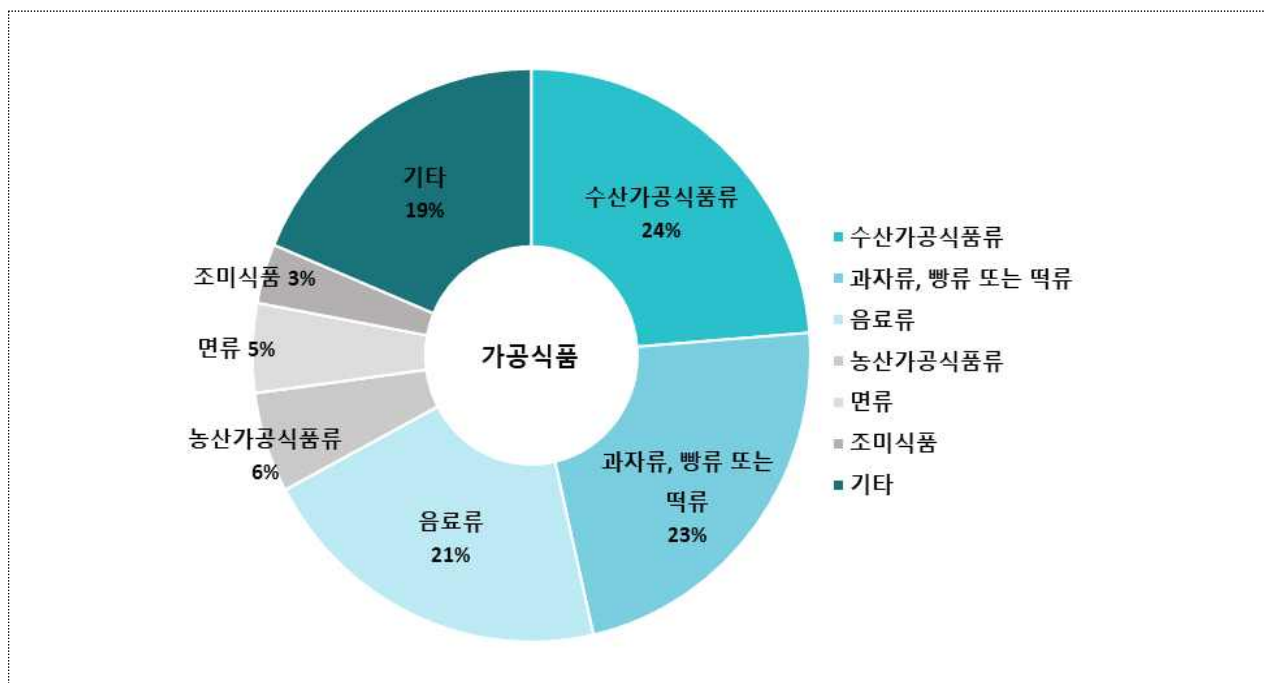
* 주요 부적합 원인 :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38건), 라벨 불합격(25건), 서류미비(15건)

[중국_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연도별/식품유형별]

구분	'17년	'18년	'19년	합계
가공식품	362 (98)	90 (95)	24 (89)	476 (97)
건강식품류	2 (1)	1 (1)	0 (0)	3 (1)
농산물	1 (0)	0 (0)	0 (0)	1 (0)
수산물	2 (1)	3 (3)	3 (11)	8 (2)
기타	1 (0)	1 (1)	0 (0)	2 (0)
합계	368 (100)	95 (100)	27 (100)	490 (100)

(단위: 건, ()는 연도별 식품 구분 비율, %)

[중국_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가공식품의 유형별 ('17년~'19년)]



- (원인별) 식품첨가물이 139건(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표시위반 114건(21%), 미생물 80건(15%) 순이었음
- 부적합 사유가 기타로 분류된 항목도 207건³⁾으로 38%를 차지했으며, 기타 항목에는 서류 미비(17%), 품질유지기한 경과(16%) 등이 포함됨
 - 품질유지기한 경과로 인한 부적합 비율은 '17년 21%에서 '18년 9%로 감소하였으며, '19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
 - 서류 미비로 인한 부적합 사례는 '17년 48건, '18년 35건, '19년 10건으로 점차 감소했으나, 전체 부적합 사례 중 비율은 '17년 11%, '18년 36%, '19년 36%로 증가하고 있음
 - 식품유형별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과자류는 표시위반(3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품첨가물(27%)이었으며, 음료류는 서류 미비(29%)와 표시위반(27%)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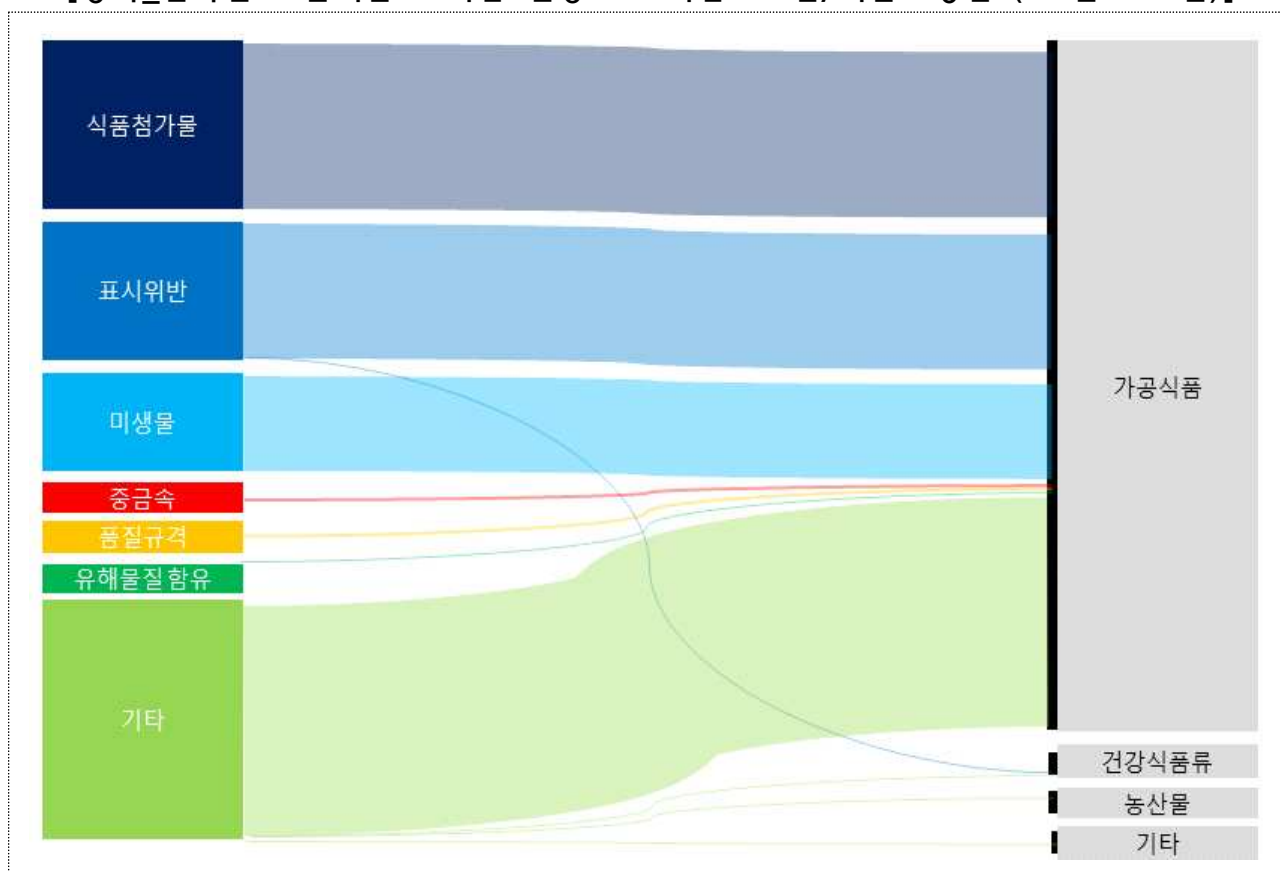
3) '개요' 내용 중 중국에서 발생한 기타 항목 부적합 건수 207건에, '품질규격 위반(3건)', '유해물질 함유 항목(1건)'을 기타 항목으로 통합하여 기타 항목의 총 부적합 건수를 211건으로 언급함

[중국_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연도별/부적합사유별]

구분	'17년	'18년	'19년	합계
식품첨가물	104 (25)	28 (29)	7 (25)	139 (25)
표시위반	105 (25)	7 (7)	2 (7)	114 (21)
미생물	60 (14)	14 (14)	6 (21)	80 (15)
중금속	3 (1)	0 (0)	0 (0)	3 (1)
품질규격	3 (1)	0 (0)	0 (0)	3 (1)
유해물질	0 (0)	1 (1)	0 (0)	1 (0)
기타	146 (35)	48 (49)	13 (46)	207 (37)
합계	421 (100)	98 (100)	28 (100)	547 (100)

(단위: 건, ()는 연도별 부적합사유 구분 비율, %)

[중국_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부적합사유별/식품유형별 ('17년~'19년)]



(3) 대만

□ 3개년 간 대만 식품약품관리서(TFDA)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은 총 84건이었음

- '17년 37건, '18년 23건(전년 대비 ▼38%) 발생했으며, '19년 24건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함

* 3개년 간 한국산 식품의 對대만 수출액(누적)은 약 11억 달러로, 전체 국가 중 8위를 차지함

□ (식품유형별) 농산물 68건(81%), 가공식품 16건(19%)으로 타 국가에서 다양한 식품군의 부적합 사례가 발생한 것과 달리 농산물에 크게 집중됨

- 부적합 농산물(채소류 51건, 과일류 17건)은 배추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딸기 13건, 들깨잎 4건 순이었음
- 부적합 가공식품은 소스류(7건), 절임류(5건) 등이었음

[대만_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연도별/식품유형별]

구분	'17년	'18년	'19년	합계
농산물	29 (78)	18 (78)	21 (88)	68 (81)
배추	21 (57)	6 (26)	8 (33)	35 (42)
딸기	5 (14)	3 (13)	5 (21)	13 (15)
들깨잎	0 (0)	2 (9)	2 (8)	4 (5)
멜론	0 (0)	3 (13)	0 (0)	3 (4)
상추	0 (0)	0 (0)	3 (13)	3 (4)
기타	3 (8)	4 (17)	3 (13)	10 (12)
가공식품	8 (22)	5 (22)	3 (12)	16 (19)
합계	37 (100)	23 (100)	24 (100)	84 (100)

(단위: 건, ()는 연도별 식품 구분 비율, %)

□ (원인별) 총 100건 중 잔류농약이 83건, 식품첨가물이 17건을 차지함

- 잔류농약은 농산물의 부적합 원인이었으며, 식품첨가물은 가공식품의 부적합 원인임
- 잔류농약 중 주요 부적합 성분은 플로니카미드(Flonicamid)와 에토펜프록스(Etofenprox)로 해당 농약에 대한 대만의 허용기준은 국내보다 엄격함

[플로니카미드와 에토펜프록스의 부적합 건수 및 잔류허용기준 비교(배추 기준)]

농약명	부적합 건수 (건)	농약 부적합 사례 비중 (%)	잔류허용기준(mg/kg)	
			대만 ⁴⁾	국내 ⁵⁾
플로니카미드	26	38	0.01	0.7
에토펜프록스	10	15	불검출	0.7

- 식품첨가물 중 주요 부적합 첨가물은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가 7건(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카린나트륨이 4건(24%)이었음

4) 대만 식품약품관리서, 농약잔류 허용량 기준
(<https://consumer.fda.gov.tw/Law/PesticideList.aspx?nodeID=520>)

5)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물질정보
(<https://www.foodsafetykorea.go.kr/residue/prd/mrls/list.do?menuKey=1&subMenuKey=161>)

(4) 일본

□ 3개년 간 일본 후생노동성(MHLW)이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은 총 62건이었음

- '17년 21건, '18년 25건(전년 대비 ▲19%) 발생했으며, '19년 16건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함

* 3개년 간 한국산 식품의 對일본 수출액(누적)은 약 63억 달러로,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함

□ (식품유형별) 가공식품이 41건으로 66%를 차지했으며, 이어 수산물 12건(19%), 기구용기포장 7건(11%)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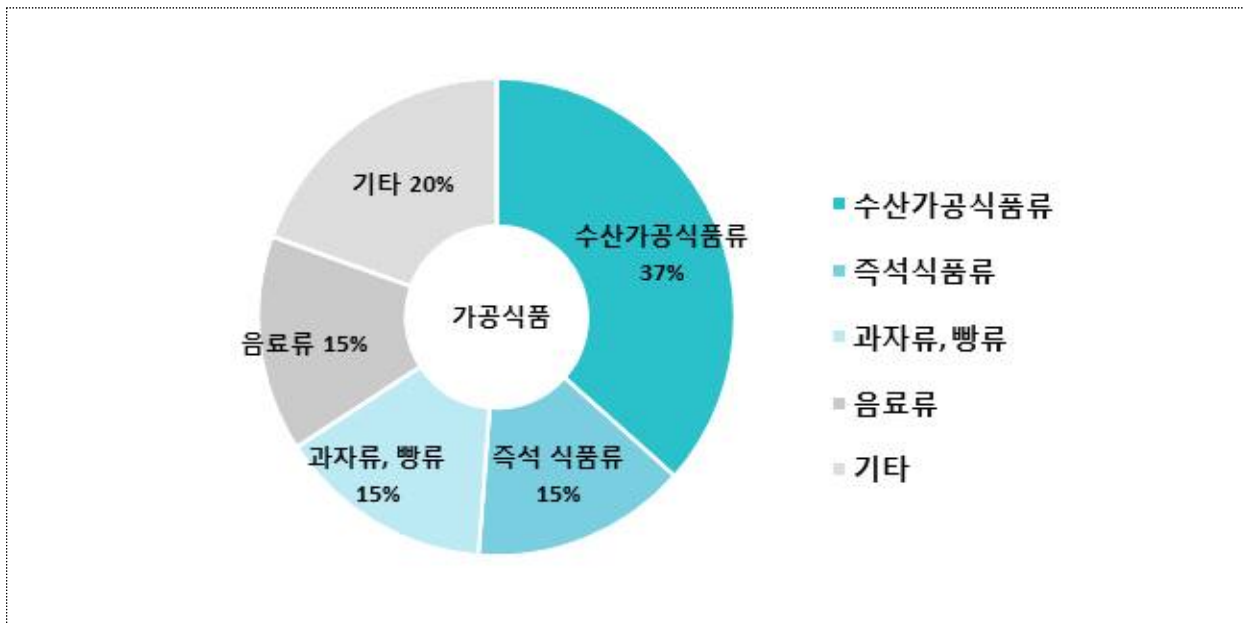
- 부적합 가공식품에는 수산가공식품류(15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즉석식품류(6건), 과자류·빵류(6건), 음료류(6건) 등이었음

[일본_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연도별/식품유형별]

구분	'17년	'18년	'19년	합계
가공식품	15 (71)	14 (56)	12 (75)	41 (66)
수산물	4 (19)	7 (28)	1 (6)	12 (19)
기구용기포장	2 (10)	3 (12)	2 (13)	7 (11)
식품첨가물	0 (0)	0 (0)	1 (6)	1 (2)
농산물	0 (0)	1 (4)	0 (0)	1 (2)
합계	21 (100)	25 (100)	16 (100)	62 (100)

(단위: 건, ()는 연도별 식품 구분 비율, %)

[일본_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가공식품의 유형별 ('17년~'19년)]



□ (원인별) 미생물이 34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첨가물(21%), 기타*(15%), 유해물질 함유(3%), 중금속(2%) 순이었음

* 기타 항목 :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카프롤락탐, 납), 동물용의약품(옥시테트라싸이클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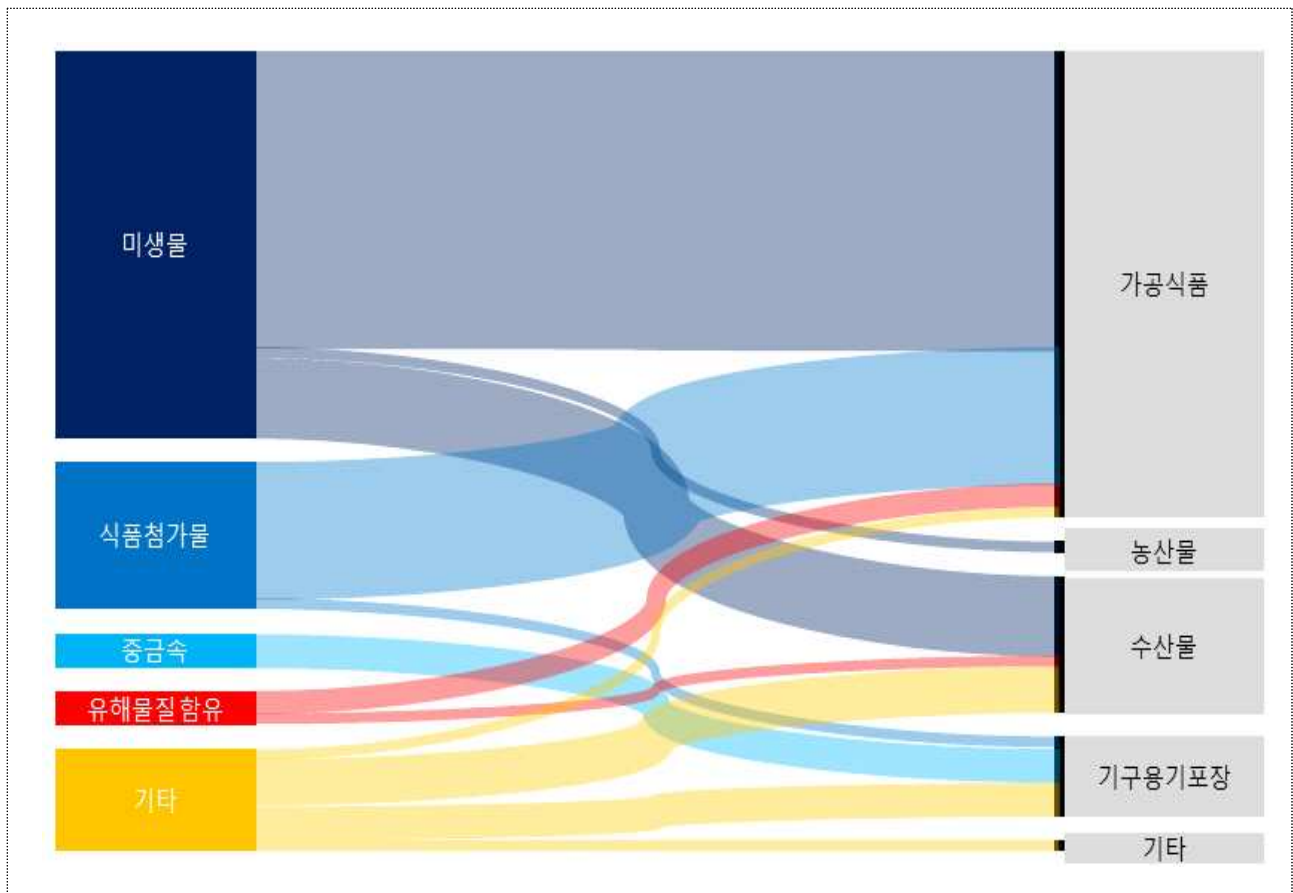
- 식품유형별 주요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가공식품은 대부분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오염(63%)과 식품첨가물(29%)이며, 수산물은 미생물 오염(58%)이었고, 기구용기포장류는 중금속(43%)였음

[일본_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연도별/부적합사유별]

구분	'17년	'18년	'19년	합계
미생물	10 (48)	17 (68)	7 (44)	34 (55)
식품첨가물	2 (10)	5 (20)	6 (38)	13 (21)
중금속	1 (5)	1 (4)	1 (6)	3 (5)
유해물질 함유	2 (10)	0 (0)	1 (6)	3 (5)
기타	6 (29)	2 (8)	1 (6)	9 (15)
합계	21 (100)	25 (100)	16 (100)	62 (100)

(단위: 건, ()는 연도별 부적합사유 구분 비율, %)

[일본_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부적합사유별/식품유형별 ('17년~'19년)]



(5) EU

□ 3개년 간 유럽연합이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을 통해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은 총 30건이었음

- '17년 9건, '18년 12건, '19년 9건 발생하였으며, 매년 평균 10건의 부적합 사례가 발생함
- 통보국(수입국)별로는 독일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탈리아(4건), 영국(4건), 벨기에(2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각 1건)순이었음

* 3개년 간 한국산 식품의 對EU 수출액(누적)은 약 18억 달러로, 전체 국가 중 4위를 차지함

□ (식품유형별) 수산물이 19건(63%)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8건(27%)이 뒤를 이었음

[EU_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식품유형별/국가별 ('17년~'19년)]

구분	수산물	가공식품	농산물	건강기능식품	합계
독일	7	4	2	1	14
이탈리아	4	0	0	0	4
영국	3	1	0	0	4
벨기에	2	0	0	0	2
노르웨이	1	0	0	0	1
덴마크	0	1	0	0	1
스위스	0	1	0	0	1
오스트리아	0	1	0	0	1
폴란드	1	0	0	0	1
프랑스	1	0	0	0	1
합계	19	8	2	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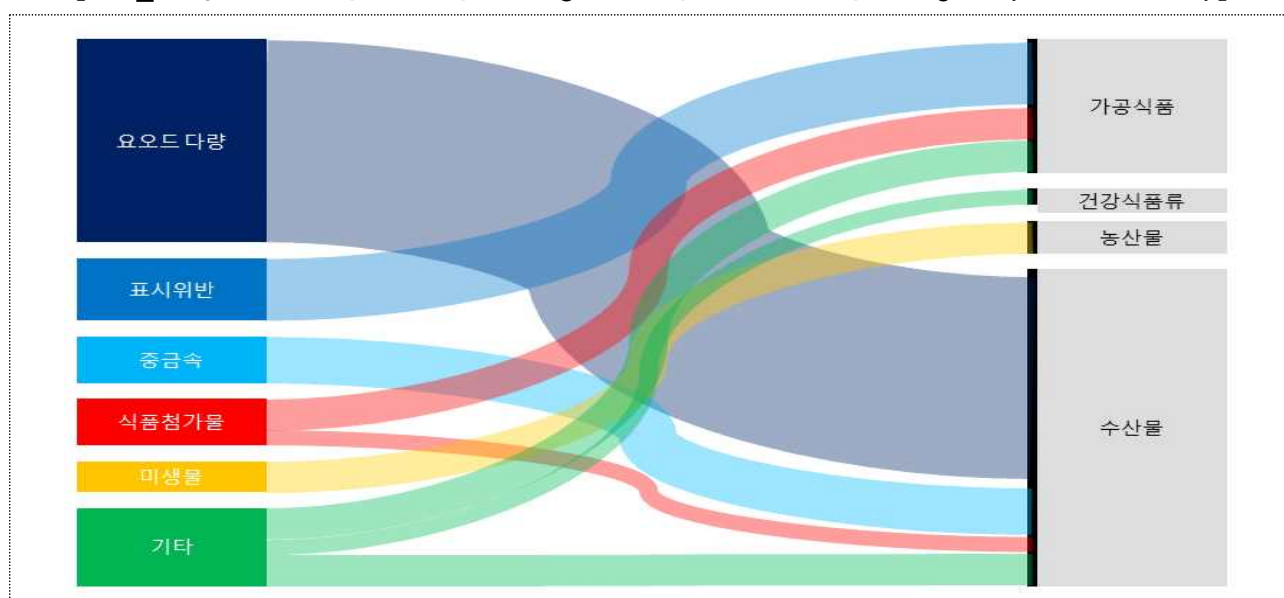
- (원인별) 요오드 다량 함유가 13건(4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4건), 식품첨가물(3건), 중금속 검출(3건) 순이었음
- 식품유형별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수산물은 요오드 다량 함유(13건)와 중금속 검출(3건) 등이었고, 가공식품은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4건)와 식품첨가물(2건) 등이었음
 - 수산물 중 해조류(미역, 김 등)에서 요오드 다량 함유 관련 사례 13건 중 12건(92%)이 모두 독일에서 시판 중지(Market withdrawal)된 사례임

[EU_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연도별/부적합사유별]

구분	'17년	'18년	'19년	합계
요오드	3 (33)	7 (58)	3 (33)	13 (43)
표시위반	1 (11)	1 (8)	2 (22)	4 (13)
중금속	2 (22)	0 (0)	1 (11)	3 (10)
식품첨가물	0 (0)	2 (17)	1 (11)	3 (10)
미생물	1 (11)	1 (8)	0 (0)	2 (7)
기타	2 (22)	1 (8)	2 (22)	5 (17)
합계	9 (100)	12 (100)	9 (100)	30 (100)

(단위: 건, ()는 연도별 부적합사유 구분 비율, %)

[EU_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부적합사유별/식품유형별 ('17년~'19년)]



3

맺음말

- 미국은 주요 5개국에서 발생한 표시위반 사례 중 약 83%를 차지할 정도로 표시위반으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주의가 요구됨
 - 미국 FDA는 새로운 규정인 「영양성분 표시 개정 규칙」(‘14년 발표)을 ‘20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 * 연 매출액 천만 달러 이상 제조업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 매출액 천만 달러 미만 제조업체: ‘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올 상반기 발생한 팽이버섯으로 인한 사례* 참고 시, 수출국 규정 외에 수출 대상국의 식생활 문화(식습관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출을 진행해야 할 것임
 - * 미국에서 ‘20년 3월 발생한 한국산 팽이버섯으로 인한 리스테리아 식중독 및 회수는 양국간 식문화의 차이(한국은 버섯을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샐러드 형태로 바로 섭취)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
 - 대미 식품 수출업체는 ‘20년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생산단계 과일·채소류의 미생물 위생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철저한 위생관리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임
- 중국에서 부적합 조치된 한국산 식품은 대부분 과자류와 김으로, 김제품은 미생물과 표시기준을, 과자류는 식품첨가물과 표시기준에 주목해야 함
 - 최근 3년간 대중국 수출 상위 5개 품목에 항상 포함되는 김제품은 세균수로 인한 부적합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은 국내와 달리 김제품에 대한 총 세균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수출 시 유의해야 함

- 대중 수출업체들은 현재 중국에서 제·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수입식품 관련 법령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함
 - '20년 6월 중국 해관총서는 현행 수출입식품관리제도를 개선을 위하여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進出口食品安全管理方法)」 의견수렴고*를 마련, 발표한 바 있음
 - 동 방법의 시행 시 수입식품에 대한 수출전 사전검역제도 및 관리감독 증서와 합격증명자료 등을 요구하게 됨
 - '17년 12월 의견수렴을 진행했었던 「식품첨가물 사용 표준(GB 2760)」은 '20년 8월 현재 개정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가공식품 수출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국가표준인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아울러 중국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들은 현지 수입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또는 통관대행업체 자문 등을 통해 현지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대만에서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임
 - 잔류농약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 항목이나, 국가마다 농산물의 재배환경과 국민의 식습관 등의 차이로 사용 허용 성분 및 잔류허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국 기준 준수가 필요함
 -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방법'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한국산 배추에 대한 검사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또한 대만 정부는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확대 시행⁶⁾하고, 매년 검사방법도 개정하는 등 잔류농약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수출 전 자가검사 등을 통해 대만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위생복지부 공고 「식품 중 잔류농약 검사방법」에 따르면, 검사항목을 기존 374개에서 381개로 확대함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일본의 경우 한국산 수산물가공품의 미생물 부적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고 있어 관련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임
 - 일본 정부는 수입식품의 위반상황 등을 바탕으로 한 검사 외에도 수입식품 관련 일본 내 식중독 사례와 해외의 위해 요소 검출 상황 등을 참고하여 병원 미생물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은 한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생식용 피조개와 키조개의 장염 비브리오와 양식 넙치의 기생충 쿠도아(Kudoa septempunctata)에 대해 검사명령*으로 관리하고 있음
 - * 수입신고서별 전 로트에 대한 검사 의무
 -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 1일 이후에 수입되는 생식용 굴과 복어에 대해서 수출국의 정부 기관에서 발행된 증명서 또는 사본의 첨부이 요구됨
 - 생식용 굴과 복어를 대일 수출할 경우,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발급한 위생증명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EU는 해조류 제품의 요오드 함량 과다와 관련한 부적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각국의 안전관리 참조 기준을 파악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음
 - '18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 해조류 및 해조류 제품 중 중금속 및 요오드 함량에 대한 모니터링(18~'20)을 시행할 것을 권고함⁷⁾
 - 해당 모니터링의 결과(사례분석) 및 조치 동향을 참고하며, 각국의 기준은 국가별 요오드 섭취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7) 유럽집행위원회, Commission Recommendation (EU) 2018/46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18.078.01.0016.01.ENG)

- 특히 EU에서 요오드 다량 함유 문제가 발견된 사례 중 약 90%가 독일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요오드 관련 기준규격,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 (참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출용 조류 중 요오드 항목 정밀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전 대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해외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수출 대상국의 식품안전 관리정책 및 수입 제도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따른 관리정책의 변화 상황도 신속히 인지하여 대응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임

- '20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COVID-19 확산이 식품업계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별로 식품 가공시설 관리 및 수출입에 대해 강화 또는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은 수입 식품에 대해 COVID-19 검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육류가공업체로부터의 식품 수입을 중단하는 등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은 해외공급자검증 프로그램에 대해 일시적으로 원격 수입업자 검증을 시행하고, 소매판매용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식품의 소매 판매를 허용하는 임시 정책을 실시함
- 유럽집행위원회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은 동물, 식물, 식품, 사료에 대한 공식 통제를 보다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치 방안⁸⁾을 발표함

8) 유럽집행위원회 보건식품안전총국, COVID-19로 인한 동물, 식물, 식품, 사료 관련 공식 통제 완화 조치 방안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0R0466>)